

뉴 비 전 교 회 계 간 지

New Vision

통권 242호

SPRING
2020





교회, 우리 영혼의 집

목사님이 교회건축 설계자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축 계획 가운데 설계자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건물과 함께 콘도 두 채를 원하신다고요?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의 거처인가요?” 목사님의 대답은 엉뚱한 것 같았습니다. “그 콘도 두 채는 우리 교회 성도 두 가정이 와서 살게 하려고 해서이지요. 직접 교회 건물과 시설도 관리해 보고, 교회를 따뜻한 집으로 삼게 해 보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교회를 그들에게 그리운 고향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도,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를 다시 찾게 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교회를 통해 참 고향인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의 따스함을 마음에 품게 해 주는 곳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Shelter-in-Place 라는 자택 격리로 인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택 격리 기간에 저는 새벽예배, 수요 저녁예배 시간을 빈 본당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일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면, 말씀을 전하며 카메라 속으로 더욱 빠져 들어가듯, 카메라만을 주시하며 설교했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건물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사역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소서. 현재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그 순간을 사모하고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보여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고, 우리 영혼의 집인 당신의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되신 예수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 **이진수** 올림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책상 앞에서)

New Vision

SPRING 2020

통권 242호

하나님의사람들을세워세상을변화시키는교회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발행인 | 이진수

지도목사 | 김성호

출판임원 | 조태범

편집장 | 배난모

편집팀 | 이영숙, 최영수, 박영미, 이지연

이민기, 윤미영, 최희주, 정재오,

김원철

디자인팀 | 류양희, 박성민, 이수잔, 박현주

발행한 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 잡지로 일년에 4번 계
절별로 출판되며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글과 그림, 사진으로 만들어집니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느끼
시고 경험한 내용을 시/수필/간증문 등으로 자유
롭게 쓰셔서 예배사역원 메일함 또는 배난모 집사
(nvcpublication@gmail.com)에 이메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이 중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내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없
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0
All rights reserved.

ON THE COVER

[사진 | 송경원]



Contents

2	담임 목사 칼럼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선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OO 선교사
5	사역팀 소식	미디어팀	강석윤 전도사
6	교회개혁팀		그레이스 신
8	꿈의학교		이영숙, 배난모
10	목회자 칼럼	순종	이지춘 원로목사
11	목회자를 알아	피터 정 목사	이지연
12	뉴비전인	주진호, 주샌디 집사	이영숙, 배난모
15	새가족 소개	어현규, 정예진 가정	이민기
17		강문식, 성언정 가정	이민기
19	수필	교회에서 뵈기를 바라며	강은애
20	수필	희망이라는 끈을 붙들자	폴 손
21	우리 가족은요	문화와 언어를 넘어	김성희
22	아빠의 육아일기	하나님의 선물	최영수
23	여행에서 본 기독교 (2) 로마편		김원철
28	목사님 궁금해요	왜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이진수 담임목사
29	영화로 만나는 고전 (13) 어린 왕자		안재규 목사
30	성경 퀴즈	도전! 성경 퍼즐	출판팀
31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출판팀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글 | N국 200선교사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께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가족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탁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밤을 때 닦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91:1-6)

참새 한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비리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하여 찬송하리로다.” (시 43:5)

여기도 모든 학교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방학을 하였습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한 분들도 가끔씩 만나서 교제를 하고 예전처럼 자주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 만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게 나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한지 아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롬1:9-10)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자 로마서를 기록하는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땅과 그 땅의 영혼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

예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 예배 사역원 미디어팀

글 | 강석운 전도사



올 한해를 돌아보며 예견하지 못한 지난 3개월을 지내오며 감사한 나날을 보냈다. 1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우리 삶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예배를 섬기는 미디어팀은 이런 변화에 맞춰 미디어 사역을 통해 주일예배를 섬기고 있다.

처음으로 COVID-19 관련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였다. 2주 동안 각본을 쓰고, 연출하며 배우들을 섭외했고 토요일 하루 종일 촬영한 동영상은 본당 스크린을 통해서 공유되었다. 같은 시기에 Live Streaming 사역을 시작했다. 주일예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사역, 실수없이 완벽하게 진행해야 하기에 매 순간 긴장가운데 주일을 보낸다. 때로는 긴장감 때문에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번이고 깨기도 한다. 하지만 섬김을 통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 감사함으로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된다.

우리 삶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 Shelter-In-Place 명령을 경험하며 재택근무를 경험하리라 생각했는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전염병으로 인해 수십만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만이 죽어가리라 생각했는가? 사회와 국가 시스템이 중단되어 마비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다. 상황속에서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내 삶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다. 가정에 예견하지 못한 일들, 건강 문제, 직업과 사업에 일어나

는 예견하지 못한 일들,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인해 우리는 기대 보다는 걱정으로 살 때가 많다. 믿음의 삶은 예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시가서를 읽어보면 여러 상황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지만, 기나긴 고통의 밤을 지나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시편 기자들은 자신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도 찬양하고 있다. 새 날을 찬양한다.

Social Distancing 으로 인해 자신을 격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된다. 예견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알아간다면 축복과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매주 미디어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예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또한 은혜이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NVC 교회개척 ?!

글 | 그레이스 신

교회개척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은 곳, 복음의 박해가 심한 곳, 지역사회에 복음적 교회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교회와 (교회개척) 세워진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교회개척자)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미자립교회) 지원하고 동역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개척팀 사역은 2015년에 시작이 되어 현재는 4개 교회개척, 4개 미자립교회, 2명의 교회개척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Eden Church 와 CenterSet Church가 모범적 교회 개척 사례로 California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교단 가주 총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교회개척주간 행사를 통해 지역교회에서부터 터키에까지 어떻게 주의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지 좌담회와 홍보 책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뉴비전호에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회개척자와 이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단체(GCA)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San Jose 지역의 Iglesia Bautista Agua Viva, 토니 발렌시아(Tony Valencia) 목사



토니 발렌시아 목사님은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 산호세에서 히스패닉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케냐에 치킨 농장을 설립해서 고아원과 마을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후원금을 보내드리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 Oakland 지역의 The Realm Church, 제임스 웨스트브룩 (James Westbrook) 목사



제임스 웨스트브룩 목사님은 무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켄터키에서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오�클랜드에 작년 9월 다문화 교회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개척자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 드리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 Great Commission Association of Southern Baptist Churches (GCA), 원세종 목사



GCA 침례교 지방회 부 디렉터인 원세종 목사님은 산마테오 카운티에서부터 산타바바라 카운티안의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미자립교회, 교회개척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앞으로도 NVC 교회개척팀은 GCA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 Dr. Linda Bergquist와 협력하여 미자립교회와 교회개척자를 발굴하고 도울 것입니다.

교회개척 기도팀에 신청하시면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들의 기도 제목과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헌금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한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쓰임받고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 실천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churchplanting@newvisionchurch.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Embrace the world with His Love

꿈 의 학 교

취재, 글 | 이영숙, 배난모



지금 시카고, 휘튼 대학교(Wheaton College)에 재학 중인 꿈 많은 두 청년을 우리 교회의 VIP 룸 앞에서 만났다. 이들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꿈 의 학교’에서 만나 유학까지 함께 온 절친한 친구 사이다. 산호세에 어젯밤에 도착, 꿈의학교에서 스승이었던 김원철 집사님을 찾아 뵙기 위해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졸업하신 ‘꿈의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민수 : 네, 꿈의학교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격, 비전,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곳이지요. 학생 전체 숫자가 300명 정도이고 교사가 70명, 한 반이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요. 대안학교는 대부분 일반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흔히들 알고 계신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라서 성경공부와 신앙생활을 하려고 선택한 것이지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꿈의학교’를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이재윤 : 저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고민하고 계시던 중 이 학교를 알게 되셨어요. 저 또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싶지는 않았고요. 교회의 한 친구가 원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꿈의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게 소개해 주어서 학교 설명회를 참석하고 나서 확신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여름 선발 캠프를 통해 꿈의학교를 체험해 볼 기회를 미리 가졌는데 선배들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결심을 굳혔고 중학교부

터 다녀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일반 학교와 ‘꿈의학교’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최민수 : 한국에는 대안 학교가 아주 많습디만 그 중 꿈의학교는 1세대 기독교 대안 학교로서 ‘신앙 중심 교육’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다짐하고,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중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주며, 고등 꿈쟁이들이 직접 찬양을 인도하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꿈의학교에서는 학생을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저한테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살던 곳은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니어서 가끔 일반 학교로 진학한 친구들을 보면 꿈의학교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독교적인 마인드셋과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인성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꿈의학교에서 체득한 것들이 대학교 와서 생활해 보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법 등 꼭 필요한 것들을 꿈의학교에서 미리 배운 듯합니다. 휘튼칼리지까지 온 것도 꿈의학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윤 : 꿈의학교는 또한 생명 캠프, 성경통독, 전도여행, 성경수업 등 다양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위십 축제도 있어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꿈의학교는 꿈이름과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도 달라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이름 대신 꿈이름을 서로 불러주는데, 이 꿈이름은 자신이 살아가고 싶

은 삶의 모습을 이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또 서로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서로 존대어를 사용해요. 김원철 선생님의 꿈이름은 ‘이해하는 님’이셨어요.

학교의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민수 : 우선 저는 금식과 기도, 예배 행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십자가 정병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고요. 우리 학교의 모토가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자’여서 매년 겨울에는 다양한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터키, 우간다,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일본 등 각 지역으로 2주간 떠나 선교활동을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네팔로 가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어요.

또, 겨울마다 김장 축제를 하는데요. 전교생이 김장을 직접 하고 그걸로 한 해 동안 저희가 먹어요. 김장할 배추와 야채도 직접 재배하고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바가 큼니다. 매년 진행하는 국토사랑행진은 4박 5일간 걸어서 120 km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해 감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솔로몬 학술제라는 학술 발표제도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연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로켓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을 개발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어요. 야구장에서 발사되는 공 기계를 오토바이에서 부속품을 추출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코딩 프로그램과 컴퓨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 외에도 생명캠프, 독서캠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또한 개교 이래로 꿈의학교는 ‘책’이 중심이 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독서 교육을 강조하며 책과 삶이 하나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졸업 후의 진로와 졸업생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재운 : 전체 졸업생 60명 중에 10명 남짓은 저희처럼 해외로 유학을 가고 나머지는 국내 대학으로 많이 진학합니다. 졸업한 선배들과의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졸업한 선배가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에서 일 년 정도 TA로 일하기도 하고요.

최민수 : 고등학생 때는 누구나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부 인물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듣고 꿈을 키워 나가는 직업 탐방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꿈의학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졸업생들도 국내, 국제 할 것 없이 다방면에 많아요. 학교로 돌아와 후배이자 제자들을 양성하는 졸업생 교사들도 있어요. 매년 학교 소개 책자 및 꿈지(학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는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최민수 : 꿈의학교 교사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러 조건들을 보겠지만 신앙적인 면을 크게 보고 면접을 통해 모집하는 것으로 알아요. 김원철 집사님께서도 저희 학교 생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해 주셨어요. 하신 일은 야간 자율학습 감독, 관리, 그리고 상담 등이었어요. 각 기숙사마다 사감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신데 혹시라도 저희 사감 선생님이 못 오실 때가 있으면 그 때마다 김원철 집사님께서 저희가 큐티하는 곳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 주시고 실천할 것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질문들이 생각해 봄직한 것들이 많았고, 가끔씩은 선생님께서 읽고 계신 책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김원철 집사님은 학생들에게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인 키팅(Keating)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셨고, 떠나실 때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인품을 모두가 인정한 그런 분이셨어요. 꿈 이름이 ‘이해하는 님’이신 그 이

틈처럼 마음이 넓고 모든 상황에서 저희를 폭넓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또한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셨어요.

‘이해하는 님’, 김원철 집사님과의 특별한 일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민수 : 하루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이해하는 님’께서 저희 기숙사에 오셨어요. 원래 기숙사 방은 각자 생활하는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 기숙사에 남아 있다 보니 ‘이해하는 님’께서 오셔서 손수 학생들의 방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을 실천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본 후에 저희가 저희 자습실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수학 문제를 몰라서 ‘이해하는 님’께 여쭙보면 늘 시간을 할애하셔서 모르는 것도 찾아서 결국 답을 알려 주시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는 수고했다고 떡볶이도 사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법을 보여주셨어요.


이재윤 : 월요일마다 1교시에 교회에 가는데 진행자가 게스트를 모셔서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 때마다 학생들이 신발을 신발장에 넣지 않아서 늘 선생님들께 혼나곤 했어요. 한번은 어느 선생님께서 제대로 넣지 않은 신발들을 몽땅 바깥으로 내던져 버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하는 님’께서 아무 말 없이 학생들의 신발을 모두 제자리에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자리에 두겠지’ 하시면서 저희를 이해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는 저희도 따라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전거를 기숙사 방으로 들고 오는 것은 규율에 어긋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이해심을 보이셨어요.

오늘 뉴비전을 방문하신 이유와 소감은?

최민수 : 꿈의학교의 한 때 슬로건 중 ‘집을 팔아 스승을 사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은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꿈의학교를 매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휴가 나와서, 전역해서, 방학이라서, 결혼 전에 인사 드리려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등등 많은 이유로 학교를 찾아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입니다.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꿈의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과도 친했지만 김원철 선생님과 는 더욱 친해서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을 뵙고 산호세 관광도 할 겸해서 이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윤 : 뉴비전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잠깐 살았던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예배당의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시카고의 운누리 교회에 출석 중인데 시카고에서 느낀 한인 규모랑 여기의 한인 규모는 다소 차이가 나네요. 같은 학교를 나온 한 친구도 이 교회를 다녀서 만날 예정이구요,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 관광도 계획 중입니다.

신앙 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했던 꿈의학교,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화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가는 이 두 청년을 마음 속으로 크게 응원한다. ‘이해하는’ 김원철 집사님과 순댓국을 먹으러 간다며 한껏 들떠 있는 두 청년의 기뻐하는 모습을 한 컷의 사진으로 남기며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전 4:16-17)” 

순종

글 | 이지춘 원로목사

출판부 배난모 팀장으로 부터 뉴비전교회에 고정 칼럼을 기고해 주면 좋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뉴비전교회의 전신인 산호세제일 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한 “사랑의 복음” 창간호가 발간된지 40여년, 내가 뉴비전 교회를 떠난 지 20여년만이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해 가며 교회 이름도 바뀌었고, 계간지도 그 이름이 바뀌어 뉴비전교회가 되었다. 건전한 성장은 건전한 바뀜을 요구하고 건전한 바뀜은 건전한 성장의 열매이다.

이제 지난 40여 년간 뉴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성장 과정을 지켜본 팔십년 할아버지 원로 목사에게 뉴비전교회 계간지에 고정 칼럼을 기고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선뜻 수락할 수가 없었다. 주저했다. 칼럼이란 영어의 column 즉 기둥이란 뜻으로 여러 단계의 변천을 거쳐 오늘 날에는 정해진 형식이나 다뤄야할 소재가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글쓰기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어느 칼럼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누구나 칼럼을 쓸 수 있지만 대중(大衆)과 호흡하는 깊이 있고 비전 있는 성찰이 숨어있지 않다면 칼럼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오래 단련된 생각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주체적 사유와 따뜻한 인간애가 바탕하고 있지 않다면 칼럼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칼럼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한 고정이란 조건이 많이 부담스러웠다. 무엇이든지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더욱 이제 내 나이 팔십이 넘어가니 무엇에든지 매이는 것이 부담스럽다.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그래서 선뜻 수락할 수가 없었고 많이 기도하며 주저했다.

한 성경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두드렸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

사에 오래 참음과 기쁘심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이 말씀의 위력 앞에 내가 사십대에 지식의 상아탑에서 교수의 직분을 떠나 처음 목회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던 그 때 처럼 이번에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칼럼을 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칼럼 전문가가 말하는 그런 칼럼을 쓸 수 있는 자질이 없어서다. 그 대신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반계와 다른 계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 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계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타지 못하게 하니라 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7:24-25)”** 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1:22-25)”** 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삶의 주추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특히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말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성도가 되기까지 바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하루에 단 한 번 만이라도,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

목회자를 알자 피터 정 목사

글 | 이지연



차세대 유년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피터 정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주련 사모는 뉴비전 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

정다린(Joyce)은 7학년, 아들, 정대한(Evan)은 5학년입니다.

목회를 결심하신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섬기는 교회는 Guiding Light Project 라는 사우스 산호세에 위치한 선교 교회입니다. 골든게이트 신학 대학원 재학 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과 가정들을 찾아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라는 응답을 받고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대상은 사우스 산호세에 사는 베트남과 멕시코 이민자 아이들과 또 지역에서 사는 흠리스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맡으신 일은 어떤 사역이신가요?

현재는 차세대 1-2학년 예배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비전 지역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역 또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Bivocational Minister로 Ameriprise Financial Advisor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Guiding Light Project를 직장을 마치고 사역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Afterschool Homework Club 과 Saturday Club으로 Outreach를 하고 목요일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뉴비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나눠주시고픈 간증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GLP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11월에 흠리스 히스패닉 할머니가 예배에 나오시고 얼마되지 않아 아들

과 함께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아들은 불행하게도 마약중독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는 멀쩡하게 왔지만 어떤 주는 마약 때문에 까맣고 어두운 얼굴로 예배를 참석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이도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진심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고 또 직장도 생겨서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함께 했는데 2달 후에는 다시 안보이기 시작해서 걱정된 마음으로 할머니께 물어 봤는데 놀랍게도 직장을 잡아서 헤이워드에서 생활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교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GLP 교회에서나 뉴비전 교회에서 제 목표는 동일합니다. 4세에서14세 (4-14 window)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평생 지킨다는 통제가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본을 보여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음세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2 학년이지만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르침을 매 주일 몸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예수님께서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또 생명의 빛을 주셨으니 저 또한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

뉴비전인 주진호 집사

취재, 글 | 이영숙



주진호 집사님을 교회에서 처음 뵈는 선교를 다녀오신 후에 주일 예배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집사님의 진솔하신 모습과 힘 있는 간증이 무척 좋은 인상으로 오래도록 남았다. 샌디 집사님은 2년 전 여름 성경학교에서 같이 사역할 때 조슈아의 엄마라는 소개와 함께 처음 뵈게 되었다. 조슈아는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

쳤던 4학년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달려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아이이다. 가끔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되었다.

영어 예배와 가정 사역 그리고 차세대 사역에 이르기까지 늘 열심부하시는 두 분의 봉사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모습이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느껴져서 마치 연예인을 인터뷰하는 듯 이 두 분을 대하는 것이 설레고 긴장되었다. 또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인터뷰 내내 수시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소년과 소녀처럼 미소 지으며 배려하고 수줍게 웃으시는 두 분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에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이 두 분의 인연은 필라델피아 뉴욕의 한 law school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Jinho : 저와 아내(주 샌디Sandy Joo), 9학년 아들인 민수(Caleb), 6학년인 민우(Joshua),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부 예배에 출석하시고 저희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영어가 편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언제 오셨나요?

Jinho : 저는 아홉 살 때 뉴욕으로 가족이 모두 이민을 왔습니다. 아내는 네 살 때 LA 로 이민을 왔고요. 저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로스쿨(Law school)에서 처음 만났어요. 결혼 후에 뉴

욕에서 잠시 살다가 아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자라서인지 뉴욕 생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이지역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게 되었고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그럼 두 분 다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어를 꽤 잘 하시네요. 비결이 있나요?

Sandy : 실은 9년 전에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가족 모두 한국에서 3년 반 정도 살다 왔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늘 한국에 가고 싶어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와서인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고 한국 정서가 잘 맞는 사람이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곳에서 각각 한국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을 그곳에서 학교에 보내야 하다 보니 생전 처음 언어 장벽에 부딪혔어요. 다행히도 거기서 만나게 된 한국 친구들을 의지해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한국말을 하는 것은 제게 큰 부담이예요.

그러면 한어 예배를 보시나요?

Sandy : 네, 한국에 나가기 전에는 작은 침례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 다녀온 후로는 어머니께서 다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같이 한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보기와는 달리 안에 한국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늘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고 한어 예배도 남편이 원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한어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나요?

Jinho : 둘 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많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각 만나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저희를 만나 주심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왔을 당시에는 뉴욕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가족 모두 개척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말씀이 제게 특별히 와 닿지는 않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에 실망한 적도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자주 나가지는 않았습니니다. 20년 전에 여기 이사 와서 작은 침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련회를 통해 영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부모님의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는 것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 드리는 거라고 믿었어요.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라는 말씀이 제게는 ‘True rest’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Sandy : 결혼 후에 작은 침례 교회를 찾았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과도 같아서 우리의 실제 삶과는 달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같았어요. 그곳은 작은 교회여서 사람들 간의 간섭과 갈등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Jinho : 저희는 요한 241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저는 현재 주일 중학교 교사로 봉사 중이며(그제서야 우리 아들의 주일학교 교사 이심을 알았다. ^^) 4월 19일 영어 예배가 시작되는데 4월부터는 영어 예배에서 섬길 예정입니다. 지금은 가정 사역팀과 만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까지의 교육 사역원 임원으로 섬겼어요. 얼마 전에는 Greif sharing 사역도 했습니다.

Sandy : 처음 한어부로 옮겨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한 적도 있었어요. 재직 세미나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때였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반갑게도 주일 학교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한어 예배로 옮겨서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를 한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시는 직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Jinho : 저는 클로락스(Clorox) 회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본사는 오클랜드에 있고요. 저희 회사는 클로락스 표백제와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 세정 물티슈 그리고 립밤으로 유명한 벌츠비(Burts Bee)와 브리타 정수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

제 거래 관련된 일인데요. 합병과 인수 및 공개 신고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가능한가요?

Jinho : 북가주에서 종교에 관해 이야기 꺼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많아요. 전도는 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친해진 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교포이자 믿음이 없는 변호사 친구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했는데 건강상의 문제와 형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함께 기도를 하면서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친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샌디 집사님도 오랫동안 검사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만 두신 이유가 있나요?

Sandy : 네, 오랫동안 일을 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어렵게 10년 만에 얻고 보니 아이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무렵에 일을 그만 두었지요. 일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직장 다닐 때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과 성경공부도 규칙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가정 사역과 선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Jinho : 아내가 어머니 학교의 숙제로 세족식을 했는데 부끄러웠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어머니 학교 수료 후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어서 수료를 하고 가정 사역을 돕게 되었어요. 아직 저도 언어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사역을 돕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는 아버지 학교는 나쁜 아빠만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은 더욱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아빠들이 모여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곳이었어요. Staff로 봉사를 하면서 가정 사역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5월 초에 ‘청소년 감동 캠프’가 북가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 아

이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모님과 하루 6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변화를 경험하는 캠프예요. 아이들과 부모님 설교가 따로 있고요. 저는 영어권 봉사가 필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Jinho : 2년 전에는 중국을, 작년에는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 곳으로 선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서 더욱 좋았어요. 다행히도 아직은 반대를 하지 않을 나이여서 기꺼이 따라나서는 아이들이 참 대견해요.

Sandy : 중국에서는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4학년이었던 둘 짝이 한 반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했어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오랜 시간을 봉사하면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너무 잘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 일을 묵묵히 같이 할 만큼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미 Brother in Christ 라고 느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해에는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이 때도 가족들과 함께 해서 좋았어요.


Jinho : 일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영어 선교를 필요로 해서 갔었는데 중, 고등학생 4명이었고 영어 사역에 참여했어요. 한어 팀과 영어 팀으로 나눠서 동시에 사역하고 나중에 합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일본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는 예수님 이름도 못 밝히고 영어만 가르쳤고 하나님 사랑을 직접적인 말로 못하고 은유적인 표현만 했어요. 일본에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 오도리 공원에서 전도 큐브를 들고 청년, 청소년,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 무관심,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이 참 난감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방해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니 더욱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관심과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섬김이 얼마나 힘든 지도 깨닫게 되고 새삼 감사드리게 되었지요. 한어 팀은

삿포로에서 네 시간 거리인 쿠시로라는 작은 마을의 개척교회로 갔어요. 1박 2일로 한어 팀이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외롭게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요?

Jinho :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차세대 사역에 대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일학교와 어와나 사역을 담당해 왔어요. 처음에 저는 어와나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일학교를 맡을 때는 처음이라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다보니 걱정과는 달리 진행이 잘 되었어요. 이전에 어와나를 할 때는 둘째 아들인 조슈아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 경험 이후에 차세대 사역은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비전을 갖게끔 하시네요. 조금 자란 지금, 6학년인 우리 아들은 이제는 너무 착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성경공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어른들도 아이들 성경공부와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회가 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공부를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어 섬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할 때 언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차세대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성도님들이 차세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어현규 / 정예진 가정 (마태 331 목장)

취재, 글 | 이민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개월 남짓 되는 새신자 가정을 소개합니다. (구) 마태 331 목장 (목자 김지원 사모)에 속한 어현규/정예진 젊은 부부 가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이 지역으로 직장을 갖게 되어 이사 온 후 바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에 살고 있을 때

결혼을 하였고 형제님의 공부를 위하여 미국으로 들어와 2019년에 오레곤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호세에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애플에서 칩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매님은 어린 두 아들의 (주안 3살, 시안 1살) 엄마로서 육아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님 부부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오레곤에서 공부할 때 같은 연구원에 있었던 분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적응이 안 됐으나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반가워 교회 생활을 금방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계속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 깊이 와 닿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다니고 있었던 코벨리스한인교회에서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 섬기던 중 이곳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곳으로 이사온 후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뉴비전 식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항상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고 한 주를 지내면서 계속 말씀이 그리워지는 마음에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게 되는 설레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이유도 있겠지만 매 주일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도 정말 큰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 둘을 키우다 보니 교회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기들을 위한 차세대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면서 다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날씨가 최고이고요. 큰 한국 마켓이나 식당들이 많아서 좋고 또 한국 직항 비행편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직장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교통체증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아직은 집을 살 엄두도 못내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은 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에 아직은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가 이번 학기에 1단계를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2단계, 3단계 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사역들 중에서 섬기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운동에 취미가 있어서 교회에서 있는 여러 운동 프로그램에 시간이 되는 대로 도전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불신자 때에 많은 야망과 욕심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졌던 것처럼 자신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욕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찬송가 역시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멜로디 자체도 좋지만 가사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면 걷는 자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때...”

자매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를 뽑았습니다. 타협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을 즐겨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를 높이고” 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곡 입니다.

2020년 한 해의 기도 제목으로는 이곳에서 생활의 적응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멋진 교회에서 계속 믿음과 기도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며 또 미국 사회생활 초년인 만큼 회사에서 신임 받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두 아이도 영육간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추가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배움과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형제님은 “아마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뉴비전교회에서 교사로서 아니면 목자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일 것” 이며 자매님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익숙해져서 남편과 아들들에게 깊은 인상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내 그리고 엄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웃으며 그러나 진지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 인터뷰 내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매주 아무 걱정 없이 맡겨 놓고 편안히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저희 부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들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부부의 2020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형제님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그리고 자매님은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인터뷰에 성심껏 협조해 준 어현규/정예진 부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강문식 / 성인정 가정

취재, 글 | 이민기



먼저 간단히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 관계로 2018년 9월에 산호세로 이사 와서 살고 있으며 아내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다가 2019년 초에 이곳으로 올라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94년 부터 2000년까지는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었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나가서 2018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그 해 9월에 산호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한국에서 살다가 자녀들 공부를 위하여 미국으로 2007년에 들어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다가 작년에 산호세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큰 딸과 대학 다니고 있는 둘째 딸 (Boston College 4학년) 과 그리고 셋째 딸 (UCLA 2학년)이 있습니다. 직장은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회사인 BYTON 에서 디스플레이 개발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내는 한미은행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뉴비전 교회 식구가 되었나요?

약 1년 전인 2019년 4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호세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섬기고 있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들과 순모임 리더들이 하나같이 뉴비전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등록하기 전 얼마동안 다녀보면서 성경말씀 중심인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말씀 생활과 체계적인 훈련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는 물론 이 지역에 연고도 없어서 어려웠으나 새

신자들을 잘 돌봐주고 지원해 주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지금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245 목장 (목자 정찬영 집사)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텍사스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배가 소개해 준 지인을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팀, 홍보팀 등 봉사 생활에 충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출석하던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회고해보니 말씀의 기반과 체계적인 훈련 과정 없이 봉사 자체가 우선 순위가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호세로 이사 오면서 뉴비전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하신 후 신앙 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기에 아직 실감하며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듯 하지만 일대일 훈련 및 양육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선교 사역은 여름에 나갈 선교를 1월부터 미리 광고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 사역과 봉사에 저희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 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아내의 믿음과 기도, 훈련 등을 통하여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시고 싶은지요?

저희 부부가 2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훈련을 원했기에 뉴비전 스쿨 1단계를 이번 학기에 등록하여 열심히 참석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기엔 한 번이라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고자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 3단계 계속하여 훈련의 과정에 나아갈 수 있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요?

회사가 스타트업이기에 직장 일을 하다보면 여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는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등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골프도 많이 즐겼는데 미국으로 들어온 후엔 아직까지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이곳 북가주 지역에 대해서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날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멋진 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시기에 저희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목장 역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목사님과 목장식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새로 구성된다고 하니 새신자인 저희 입장에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10년 후, 2030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큰 변화 없이 아마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라서 10년 후도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옛날에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야망과 도전을 가졌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부담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만 그리고 가정

에 충실하며 살고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미 최소 1, 2, 3단계는 다 수료하고 다양한 사역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마 할머니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생활을 열심히 이어나가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열정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소망이나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 주세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 좋은 교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1단계 성경공부에 부부가 빠지는 시간 없이 같이 잘 수료하고 가을에 2단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들이 먼저 믿음 생활 계속 잘 해나가고 또 직장만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며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긴 인터뷰 시간 동안 두 분의 웃는 얼굴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 연습 후 피곤한 가운데 장시간의 인터뷰에 함께 해 주셨던 강문식/성연정 부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교회에서 뱃기를 바라며

글 | 강은애



2020년 3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 세계적 감염병으로 선언되었다. 학교는 휴교를 하였고, 직장인들은 사무용품들을 집으로 옮겨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대형마켓은 긴장된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진열장의 캔푸드와 냉동식품은 사라졌다. 화장지와 손소독제는 품절이고 언제 다시 구할수 있을 지 모르게 되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shelter-in-place’ 시행을 명하고,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권장받았다. 자고 일어나면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는 늘어났고, 일부에선 미국계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있다. 2020년 3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살고 있다.

집에 있는 동안의 3월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웃집의 꽃들은 노란색, 빨간색으로 피어 오르고, 진분홍색의 꽃들은 나무마다 가득하고, 바람이 살짝 날리면 꽃잎도 바람따라 덩달아 날린다. 따뜻한 날씨에 새들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며 노래를 불러 주고, 동네 고양이는 슬금슬금 긴 꼬리를 살랑이며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몽실몽실한 것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 해가 길어져서 저녁밥을 먹고서도 저녁의 노을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은 너무나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왜 집에 있는지 순간 잊어버린다.

떨어진 음식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오랜만에 마켓으로 향했다. 얼마전 텅 비워진 진열장들은 캔푸드와 냉동식품들로 가득이 채워졌고 더욱 가지런해졌으며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되어 있었다. 마켓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낀채 미소를 띄며 계산을 도와 주셨다. 유머도 잊지 않으셨다. 같이 눈을 마주치고 웃는데 순간 뭔가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왔고 목이 뜨거워졌다. 감사한 마음이었다. 갑자기 순식간에 많은 분들의 모습이 머리 속으로 들어왔다. 그분들의 수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자

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의료진들, 트럭 운전자들, 우체국 직원분들, 쓰레기 수거차량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 영웅들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렇게 새삼스러울 수가 없다. 나는 집에서 더 나오지 않고, 손을 깨끗이 씻고, 밥 잘 해 먹고, 가족들 건강 챙기고, 마음을 반듯하게 하여 가족들의 마음 건강에도 힘쓰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었다.

지난 주일 이진수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면서 참으로 반가웠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이며 감동이였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강한 안식이 들었다. 위기는 기회인 것이다. 옆방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딸아이의 찬양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다 각자의 공간에 있었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었다. 영상을 통해서 목장식구들을 만나는 데 잘 지내시는 것이 너무 좋았다. 목소리도 반갑고, 얼굴을 보며 웃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분명 평범한 주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교회의 숨은 노력과 배려로 인해 다른 주일과 굉장히 다르지 않았고, 사려깊은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우리 가족은 어느 때처럼 예배로 한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2020년 3월의 아름다운 꽃도 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것이다.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화장지와 소독제도 손쉽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진의 얼굴에서 마스크로 인해 패인 자국은 사라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얼굴 보며 예배드릴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한다. 그 날이 올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유고집 풀 손 칼럼

희망이라는 끈을 붙들자

글 | 풀 손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를 연결하는 페리가 있었다. 일제시대 때에는 관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었다. 이 페리가 부두에서 떠날 땐, 배에 탄 사람과 부두의 전송나온 사람이 잘 감긴 종이 테이프를 서로 한쪽씩 붙들고 손을 흔들었다. 배가 떠나면서 이 종이 테이프가 양쪽 끝에서 길게 풀려나다가 드디어 끊어졌다. 비로소, 이별을 실감케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직장에서 점심 시간이 되면, 홍콩 출신 직장 동료와 함께 40분간 걷는다. UC 버클리 출신의 공학박사였다, 타고난 엔지니어라 매사를 재고 또 재고 후에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걷는 코스도 안전을 위해 차가 제일 안 다니는 곳으로 정한 후, 그 코스를 고집한지도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 동료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탓인지,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 나를 무슨 갑부로 봤는지 '1%'라며 빈정대는 이야기를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걸으면서 중산층에 관한 이야기가 소재로 올랐다. 자신은 중산층은 커녕 아직도 바닥을 기어다니는단다. 마지못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일갈했다. 성경 하박국 3:17-18 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한다.

때때로 동료들이 출근하면서 자발적으로 도넛이나 베이글을 사 들고 온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외치는 이 동료는 남이 사오는 것은 먹어도 자신은 지금까지 한번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못 보았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여유도 없다.

불경기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매일매일 근심 걱정으로만 사는 이웃들이 많다.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 얼굴이 아른거린다.'는 직장 잃은 남자들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라 이제 가문의 수치가 된다는 생각은 없어진지도 오래다. 절망 속에서는 자신

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한다. 노아의 방주에 탄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동물들이 딱따구리와 백개미(termites)였다. 방주 밖의 풍랑보다도 이 동물들이 방주를 파괴시키는 내부의 적들이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면,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적인 스트레스에 희생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또한 부부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 부부가 서로 헐뜯다 못해, 교회나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배우자 흉을 보는 일은 하늘에다 침뱉는 행위 밖에 안 된다. 직장 잃은 남편에게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매일 취조하듯 직장이나 알아봤느냐는 질문은 스트레스만 일으키는 독소 밖에 안된다. 풍랑이 닥치면,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도 오히려 부족할 때가 많다. 부부 싸움을 해서 사태가 호전될 수있다면 죽기살기로 싸워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서로 격려하는 편이 살아남는 길이다.

해가 지면 다시 뜬다. 비가 오면 개인 날도 온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도 있나보다. '그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라. 정작 실망해야 할 사람들은 한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에센바흐(Essenbach)의 명언을 생각해 본다. 다시금 그 관부 연락선이 떠나는 부두에서 서로 붙잡고 있던 종이 테이프도 생각해본다. 이별이라도 다시 만날 꿈이 있고, 꿈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지않은가? 그러니 꿈과 희망은 인간만이 지닌 큰 자산인 것이다.

흑룡띠의 해라는 임진년 새해가 밝아왔다. 임진년이라면 당연히 1592년의 임진왜란이 떠오른다. 그만큼 복잡하고 힘든 해가 될지도 모른다. 본국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어 임진왜란 때처럼 당파싸움으로 국론이 양분될 수도있다. 확신보다는 불투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릴 수있다. 그러므로 미지의 새해를 향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꿈과 희망의 끈을 꼭 붙들고 살아가지자. 

문화와 언어를 넘어

family

우리 가족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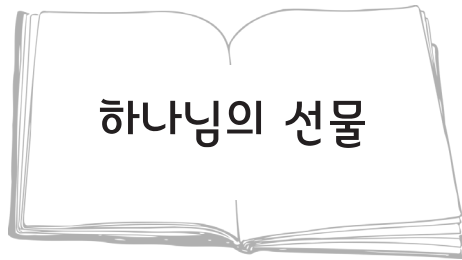
글 | 김성희(Sunny Stivers)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차세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 크리스(Chris Stivers)는 지난 2년 동안 초등부 사역을 돕다가 올해부터 차세대 어린이부 임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는 중등부 케어팀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을 시작한 남편은 컴퓨터 언어를 잘 이해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밍할 때는 밥 먹는 것도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할 정도인 것을 보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편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한 지 올해로 15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장거리 연애를 하느라 2년이라는 연애기간 동안 실제로 만나 데이트한 날은 두 달 남짓 정도였던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실제로 같이 살아보니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결혼 초반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두 아이의 부모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고 맞추어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저희 가정의 맏이 노아, 화평이는 키가 아주 큰 아이입니다. 6학년치고는 키가 정말 큼니다. “좀 의젓하게 행동해 줄래?” 라는 엄마의 말이 무색하리만큼 흥이 많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가끔 이 넘치는 에너지와 흥을 주체하지 못해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 내로라하는 몸치이지만 운동하기를 즐겨서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팀에서 매일 2-3 시간씩 에너지를 풀고 와야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아이입니다. 막내 한나는 둘째지만 속이 깊고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허그도 잘 해줍니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즐겨하는 아트 감성이 풍부한 아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자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아이가 감사함을 모르고 자라나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이리저리 치이며 부모로서 매일매일 한 뼨씩 성장해 나가는 저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정신이 없고 난리통인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엄마 아빠가 해 줄 수 있는 것부터 해 줄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뉴비전교회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 속에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글 | 최영수


예지(예수님의 지혜)가 태어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엄마 젖을 먹고 포동포동 살이 찌서, 비행기를 태워주면 볼에 살이 추~욱 늘어져 떨어질 것만 같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면 내 몸에 사랑이 채워져 흘러 넘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요즘은 예지를 재워준다는 핑계로, 예지를 가슴 위에 안고 예지와 함께 낮잠을 자곤 한다. 그러면 피곤이 풀린다. 내게 삶의 이유를 주기도 하는 예지가 많고 많다. 여러 번 써먹어서 이젠 아내가 봐주지 않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아내에게 내가 예지를 재워도 되냐고 묻는다. 또 얼마나 잘못된지 내 허벅지 위에 올려 놓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금새 눈을 찡긋하며 웃어준다. 그러면 마음이 녹는다. 내 마음을 녹이는 예지. 이를 허락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마음만 녹이는 것 같지 않다. 아내도 예지와 밤낮으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 예지와 함께 있는 것이 지겨울 것 같기도 한데, 예지에게 말을 건넬 때, 아내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내의 얼굴엔 사랑이 가득하다. 예지의 귀 뒤가 자꾸 접혀서 물집이 잡히면, 정성껏 약을 발라주고, 예지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살핀다. 역시 모성애는 강하다. 아내 안에 있는 사랑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예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허락한 선물이다.

아내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예지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예린이가 하루는 “아빠, I just want to steal 예지 one day and take her to school and show her to my friends” 란다. 기회가 날 때마다 예지를 안아도 되냐고 묻는 예인이다. 예지의 행동 하나 하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엄마 아빠에게 예지가 무엇을 했는지 예인이 특유의 흥분한 목소리로 알려준다. 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뻐하는 예인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예지가 우리 가족에게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진이는 예인이 보다 더하다. 예지 사랑에 빠져 버렸다. 예지가 태어나서 집에 처음 온 날 부터 첫 몇 주는 예지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

하지 못하는 예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예지를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만 놔두면 거의 하루 종일 예지만 쳐다보고 있을 태세였다. 그 당시엔 학교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엔 담임 선생님께서 부터 경고 먹고, 정신을 좀 차리긴 했지만, 지금도 예진이는 예지를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 자기 몸에 너무 큰 아기 띠를 하고 예지를 재우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예지 목욕도 시키고, 여전히 기회가 날 때마다 예지를 쳐다보고 있다. 예전에 예진이에게 “동생 하나 더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예진이었다. 안 그래도 동생 둘 돌보느라 자기 친구들과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나온다고 하니, 마음 속에서 슬픔이 밀려왔나 보다. 속으로 “아! 내 인생이여~”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진이가 이렇게나 예지를 사랑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하다. 학교에서 경고를 먹었지만, 예지를 사랑해주는 예진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예진이 같은 보물을 하나님이 십년 전에 주셨음을, 예지를 통해 다시금 기억나게끔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찬이는 아직 어려서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예지가 갑자기 태어나서 질투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지, 예지가 울면, 엄마에게 빨리 예지 젖 먹이라고 더 난리다. 그리고 자기 아기라면서 아무도 예지를 자기 허락 없이는 안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찬이가 예지를 이해해 주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 속엔 예지로 인해 빼앗긴 사랑을 느낄 텐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린 마음이 어디로 가겠나. 나는 내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왔을 때, 부모로 부터의 사랑 상실감이 너무 커서, 동생이 밟다며 책받침을 동생에게 던졌다고 한다. 그 상실감이 예찬이에게도 있을 텐데, 예지를 저렇게나 아껴주는 걸 보면, 참 대견하고,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 예찬이가 막내였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을, 오히려서 예찬이를 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행에서 본 기독교 로마편

글 | 김원철

로마는 여행객들에게, 역사가들에게 흥분되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프리카 북부, 서유럽 대부분,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차지한 제국의 이름이었지요. 오죽했으면 지중해를 우리의 '내부 바다'라는 뜻인 Medi-terranean이라고 불렀을까.

로마는 BC 753년에 건국되었습니다. 1대왕 로물루스는 약간 전설과 실화 중간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만 BC 717년에 왕이 된 2대왕 누마왕부터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한 해를 12달, 355일로, 12달의 이름을 January, February, ... 등으로 만든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1년 즈음이니까 이때쯤에 로마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313년에 공인된 기독교는 그 후 5개의 총대주교로 나뉘어집니다만, 베드로의 순교지인 로마에 위치한 로마 총대주교와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크게 양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국의 권력을 왕과 총대주교가 나누는 콘스탄티노플과 달리 교황이 전권을 가진 로마 카톨릭은 성인(聖人, saint)들을 신성시하는 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유해나 유물에는 이들의 다 사용하지 못한 공덕이 남아있다고 믿어서 그것을 만지거나 기념함으로 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당들은 성인과 관련된 유물을 갖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새크라멘토의 한 성당에 베드로의 지팡이가 있고, 옆집 부모가 그 지팡이를 만지고 기도하고 왔더니 그 집 식구의 병이 낫거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서로 유물 확보 경쟁을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성물이라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싶게 되겠죠. 요즈음 성당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 성당, 또는 그 성당이 속한 지역의 왕이나 영주는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로마에서 유적을 보면 그런 신화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베드로 성당의 베로니카 조각 아래에는 예수님의 땀을 닦은 천이 있다고 하고 독일의 트리어에 있는 베드로 대

성당에는 예수님의 성의가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부터는 공개하지 않으니 성의를 보려고 일부러 가시지는 마세요.) 또한 주요 관광지인 산타마리아 마조레(Major라는 뜻)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베들레헴 구유 조각을 성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각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 안 합니다. ^^

스칼라 산타 예배당



로마의 스칼라 산타 예배당에는 예수님을 많이 기억나게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 순례시에 빌라도 총독의 예루살렘 관정에 있는 계단을 떼어내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 계단이 로마 시의 라테란 지역에 있는 산 조반니 성당(Chiesa) 옆 스칼라 산타(Holy Stair) 예배당에 있습니다. 로마 테

르미니 기차역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산 조반니 역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반니는 요한의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라테란은 교황청이 바티칸 궁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교황청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원래 이 계단은 빌라도 관정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은 3-4 스텝 정도의 계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단의 폭을 나누고 이어붙여서 층수를 높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계단은 믿을 수 있는 유적일까요?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사용했던 관정은 나중에도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18장에는 예수님을 관정(빌라도 관정)에 끌고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날이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어가는 장면과 빌라도도 유대인들을 관정 안으로 부르지 않고 밖에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러 이 계단을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고난의 계단이어서 발로 계단을 오를 수 없어서 무릎을 대고 걸어서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의 손상을 막으려고 위에 목재로 된 커버가 있지만 중간중간 틈으로 손가락을 넣으시면 대리석 계단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릎으로 걷는 것이 쉽지 않으니 몸이 편찮으시면 시도하지 마세요. 옆쪽에 일반 계단으로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로마 도시에는 외부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자체 것만 해도 많으니 가져올 필요가 없죠.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제국 로마가 아닌 현재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2년 정도 머문 것이 전부인 듯합니다. 그러니 성경 유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유적은 교황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관련된 것이라면, 바울과 베드로의 처형 관련 유적들인데, 기록을 중요시했던 로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련된 유적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주요 관광지는 주요한 네 개의 성당을 제외하고는 코르소(Via del Corso) 거리 주변에 모두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버스도 많이 있고, 이 길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베네치아 광장에서 북쪽의 포플로 광장까지가 주 관광지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약 1마

일 쯤입니다.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Basilica라고 불리는 4개의 주요 성당(라테란 성당, 바울교회, 베드로성당, 마조레 성당)은 이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바실리카는 원래 공공건물을 일컫는 것인데,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의 유해가 있는 주요 로마 성당들을 바실리카로 지정합니다. 천주교 용어로는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에서, 또는 성지 순례시에 가끔 제자들의 동상을 보실 텐데요. 그 중에 12사도 동상들은 인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열쇠(주로 2개, 안에서 여는 열쇠와 밖에서 여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그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있고, 나다니엘이라고도 불리는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 모습의 껍질을 들고 있고, 요한의 옆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열혈당 시몬은 톱으로 죽어서 톱을, 바울은 책이나 칼을, 세리 마테는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피아 가도(Via Appia)

로마의 도로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정도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무척 옛날이지만 깊이 1미터 이상을 돌, 자갈,



점토 등으로 기초 공사를 하고, 배수를 위해 도로 가운데를 높게 공사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구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마차길을 약 4미터 폭으로 하고 그 옆으로 1-3미터의 인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로마제국에 5만 마일(작은 도로까지 10만 마일)정도 건설되었다고 하니, 초대교회 시절의 말씀 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도로 중 가장 오래된 도로 중 하나인 아피아 가도는 BC 31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로마의 동남쪽 성벽에서 남부 지방으로 뻗어 있는 이 도로 주변으로 산 칼리토스 카타콤베와 도미네 쿠오 바디스 성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보디올(현 나폴리 부근)에 배로 도착하여 로마로 올라오면서 형제들을 만나는 곳으로 나온 압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가 이 길에 있습니다. 압비오 광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피아 가도와 연결이 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스칼라산타 성당 부근 역인 산 조반니 역에서 아피아 가도 주변의 유적지에 갈 수 있는 일반 버스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과 묘지



베드로 성당 발다키노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처형 당하여 그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지어졌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무료 입장이지만, 베드로 유해가 있었다고 하는 지하 공간은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바티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일반 여행 사이트에서 구매할

실 수도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겠지만 저는 주로 viator.com에서 구입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표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Peter's Tomb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유해는 1940년경 베드로 성당 지하 무덤에서 발굴되었는데, 유해함에 '베드로가 여기 있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교황께서 2019년에 이 유해를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가 담긴 함은 못 보고 유해가 있었던 곳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장료가 싸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베드로 성당의 미켈란젤로 돔 아래에 있는 주제단(발다키노) 아래가 베드로의 유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가제보 같은 것이 발다키노이고 발다키노 오른쪽 아래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헬레나의 동상이 보입니다. 왼쪽은 베로니카인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 시 얼굴을 닦아준 분이라고 합니다. 조각에서 양손으로 들고 있는 천에 예수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동상들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다고 하는 룽기누스가 창을 들고 서 있고 다른 편에 X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그의 동생 안드레의 동상이 있는 것이죠.

마메르틴 감옥



포로로마노에서 베네치아 광장 쪽 출구로 나오다 보면, 원로원 건물 북쪽에 마메르틴(Mamertinum)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이 사형 전에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이곳에서 사슬에 매인 채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디

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곳을 둘러보면 디모데에게 겹옷을 가지고 와 달라고 한 사도 바울의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딤후 4:6,7)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 (베드로 쇠사슬 성당)



베드로의 쇠사슬

이 성당은 콜로세움에서 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포로로마노 북쪽 입구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두 가지 관심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쇠사슬입니다.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 중 절반을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선물 받은 쇠사슬 반쪽과 비교하려고 하였더니 두 개가 하나로 붙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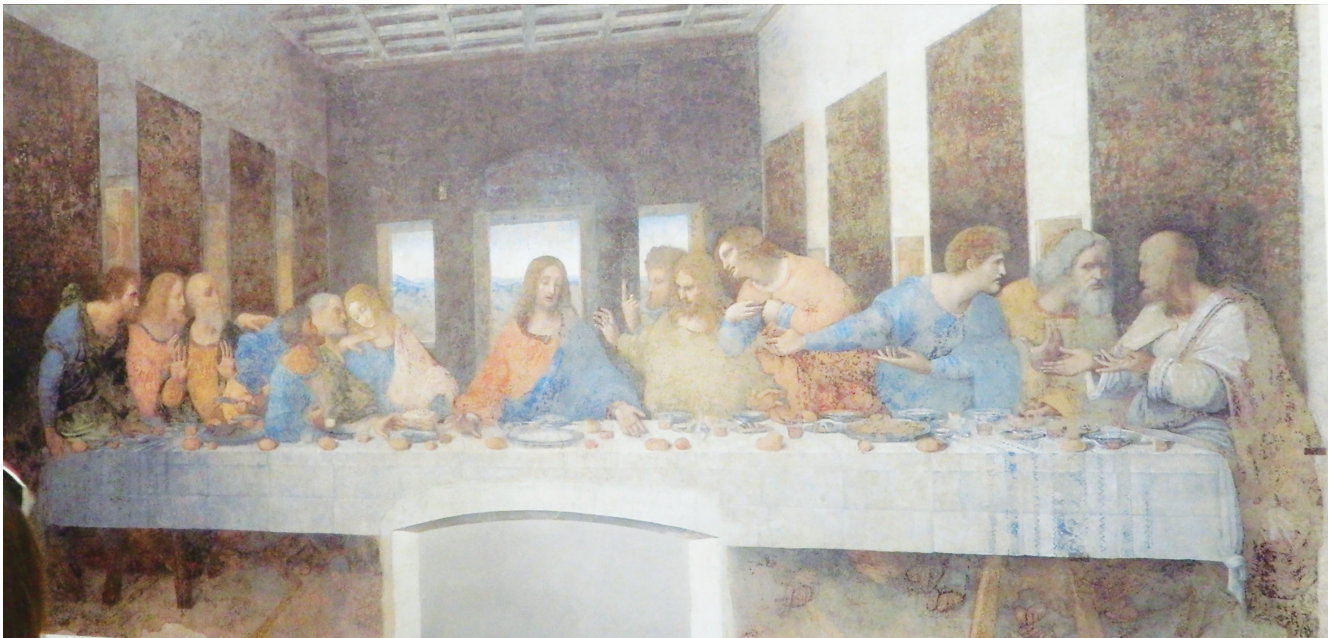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오른손으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이 보이죠? 왜 뿔이 있는지는 두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광채가 났다는 발음이 뿔이 났다와 비슷해서 오해를 했다는 설과 모세의 화난 모습을 표시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났다’와 ‘뿔났다’가 같은 뜻일까요? ^^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조각에게 ‘왜 말을 안 해?’ 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은 로마 시내 남쪽 ‘성밖의 바울교회’에 있습니다. 성바울교회에서도 최근에 바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탄소동위원소 측정으로 그 당시의 유해라서 바울의 유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밀라노 그라치에 성당

이 성당의 정확한 이름은 Santa Maria delle Grazie 입니다. 이 성당은 밀라노에 있지만 밀라노 편을 따로 쓰지 않을 것이라서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이 성당에 가는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에 40명 정도만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티켓은 매달 1일에 오픈되고 다음 3개월 동안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5월15일에 가신다면 3월1일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https://cenacolovinciano.vivaticket.it/> 이나 viator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작품이 있는 곳의 밖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요즘은 플래시를 켜지 않고 찍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로마는 성경에 나오는 유적물들을 위한 관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시절의 로마를 이해하고, 이런 로마가 있었기에 예수님 말씀이 잘 퍼질 수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호에 나올 런던 대영박물관 편에는 성경의 왕국 시대, 포로 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의 유적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적물들이 많아서 2회로 나눠서 소개되어야 할 듯 합니다.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목사님 궁금해요

이진수 담임목사

Q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A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며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5).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예수님이 이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8-19)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고백 (마태복음 16:16)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모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고, 기도예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42)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 사역을 힘써 함께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18-20) 하나님 말씀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였고,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고, 교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성도 한분 한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 받은 성도라면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이거나 교회 행정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꼭 한가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고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면, 주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과 격려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 주며 섬겨주면서,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함께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잠시 떠난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다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도와줍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 * **감상영화:**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 * **감독:** 마크 오스본
Mark Osborne
- * **제작:** 2015년, 프랑스
- * **상영시간:** 106분
- * **장르:** 애니메이션, 판타지
- * **관람대상:** 15세 이상 관람가
- * **출연:**
 제프 브리지스 Jeff Bridges (조종사 역)
 레이첼 맥아담스 Rachel McAdams (엄마 역)
 맥켄지 포이 Mackenzie Foy (소녀 역)
 폴 러드 Paul Rudd (어린 왕자 역)
 제임스 프랭코 James Franco (여우 역)
 마리온 꼬띠아르 Marion Cotillard (장미 역)
 베네치오 델 토로 Benicio Del Toro (뱀 역)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동화의 즐거리)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한 한 조종사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살던 작은 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남겨 둔 채, 여러 별을 여행(임금님,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 지리학자를 만납니다)하다 지구에 오게 된 어린 왕자입니다. 이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라는 가르침을 받고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한 송이의 장미꽃을 떠올립니다. 그리곤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 안타깝고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의 편린들 ...

‘어린 왕자’는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작품으로, 상상과 환상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돈, 권력, 지식, 명예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사랑에 있음을 조용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정다운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왕자는 믿음의 순례의 길 위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길들여 주시는 지를 성경의 렌즈로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본 동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려지는 명문장이어서 괄호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으신 후 정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 한 분께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네가 언제나 오후 4시에 와 준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할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14-15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도전! 성경 퀴즈

제공 | 출판팀

목장: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1	A		B		C		2		D
			3						
								E	
4	F		G				5		
			6						
	H		7				I		
8							9		J
10					11				

-세로열쇠-

- A 개인, 사회, 국가가 윤리,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
- B 디모데의 외조모로 디모데에게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인물 (딤후 1:5)
- C 디모데의 어머니. 바울의 전도에 의해 믿게 된 경건한 부인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 받았다. (딤후 1:5)
- D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한다.
- E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로 갔다. (딤후 4:10)
- F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욕망을 말한다.
- G 바울의 3차 여행 때 드로아에서부터 빌레도, 수리아,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신자이다. 에베소 출신의 기독교인. 바울은 로마로 향하던 중에 이 사람이 병들어 고향 가까운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딤후 4:20)
- H 그리스 서북쪽에 위치한 아드리아해 동안의 지방이다. 일루리곤의 남부 지방 중 일부였던 이 곳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으로, 바울은 이 곳을 위해 디도를 파송했다. (딤후 4:10)
- I 로마의 한 주였던 아시아 사람으로 그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다. (딤후 1:15)
- J 로마의 한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문안한 사람. (딤후 4:21)

-가로열쇠-

- 1. 감옥에 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신실하지 못한 자. 박해를 두려워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딤후 1:15)
- 2.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딤후 4:12)
- 3. 에베소에서 다스로 향하는 로마 가도 길목의 교통 요지. 바울의 1,2차 선교 여행의 주요 행선지. (딤후 3:11)
- 4. 학술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
- 5. 후메나오와 함께 이단 사상을 퍼뜨린 사람. (딤후 2:17)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림.
- 6.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나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영접했던 하녀. (행 12:13)
- 7. 깊이 동정하여 불쌍히 여김.
- 8. 바나바의 조카. 바울과 바나바간의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이지만 후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바울에게 좋은 협력자가 된다. (딤후 4:11)
- 9. 이 사람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다.
- 10. 브리스길라의 남편. 글라우디오의 박해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을 만나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 (행 18:1-3, 딤후 4:19)
- 11. 사도 바울이 두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 그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이다. (딤후 4:19)

● **응모 마감** | 2020년 5월 31일 (주일)

● **응모 방법** | 정답을 적어 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지난호 (241호) 성경퀴즈 당첨자

*당첨자 선물은 로템이 정상화 된 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이원복 (마 371), 하창렬 (마 161), 최정원 (마 231)
김영란 (막 254), 김민정 (눅 341), 강계성 (요 262)



COVID 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마태 공동체 목자들과 목사님의 만남 -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뉴비전교회 | www.newvisionchurch.org

대학청년부 | www.nvc-iworship.com

고 등 부 | www.youthlighthouse.org

중 등 부 | www.lighthousejr.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Oasis영어대학부예배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초등부 (1-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 2, 3부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예배 시간은 어른들과 동일하며 예배 후 어린이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1부 예배시에는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쉼)
화요 여성예배(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수요 말씀축제	7:30 pm	본당 (매월 첫 수요일)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학교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Pathway Bible Church는 다민족 교회를 지향하는 자매 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9:30분과 11:15분에 Pathway Chapel에서 예배 드립니다.
Pastor Bob Lee www.pathwaybible.org



뉴비전교회 웹사이트



뉴비전교회 주보



www.facebook.com/NewVisionChurch1

